

고통이 숲을 만든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전기기능공으로 뺨찌를 차고 만원버스에 올라 곱게 차려입은 여대생이 스타킹 나간다며 짜증을 부릴 때 온갖 생각이 일어났었어. 이제는 뒤늦게 복학도 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돌이켜 보면 언제나 부끄러워지는 것은 뺨찌 사쿠를 옆에 차고 버스에 올라 얼굴을 붉히던 그 고뇌의 산을 나는 훌훌 넘지 못한 것이라네.”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제적된 후, 전기기술자 자격증 6개를 따고 전기공사 현장에서 5년을 일했다. 위 글은 내가 15년 만에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회의원이 된 후 쓴 글이다.

나는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노점을 하며 ‘메리야스’를 파셨다. 두 분의 성실하신 삶의 열정에 힘입어 아버지는 중국집을, 어머니는 포목상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3선 국회의원,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 네트워크 치과 대표원장이라는 호사스런 타이틀 뒤에 나는 항상 가난을 달고 살아야만 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갖는 것도, 의사가 되는 것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도 보시지 못했다. 당시 2,720원. 전기공사 현장에서 번 돈으로 몸이 망가진 아버지께 30CC 스쿠터 하나 사드린 게 전부다. 아버지는 의료보험과 변변한 약도 없이 공업용 산소통에 기저귀 고무줄을 코에 연결해 연명하시다가 당신 손으로 호스를 빼고 내 곁에 영원히 영면하셨다.

“고통이 숲을 만든다.” 젊은 시절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던 그 신산의 고통이 내 삶의 한 순간, 순간마다 진하게 베어 있다. 제 귀를 도려낸 고희처럼 존경받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시련과 고통이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조앤 롤링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살았던 이혼녀다.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는 두 번의 암 투병을 견디면서도 아이폰을 출시해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 일대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 최고의 미디어 갑부이자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는 14세의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과 유산을 겪었다. 또한 그녀는 눈물이 많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지방 방송국에서 해고된 전력도 있었다.

재일 교포 출신으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소프트뱅크사의 손정의 회장은 28세였던 1982년 5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가 5년을 절망으로 보냈다면, 포털 ‘야후’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광주우 아시안게임 여자 사이클에 출전한 이민혜 선수는 갑상선 암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주)하림사 김홍국 회장은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 4천 억 원 매출의 회사를 일구어냈다. 나는 2번 선거에 낙선했지만, 에이브리험 링컨은 26번의 실패 끝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고, 좌절에서 비롯된 고통이 거대한 숲을 이루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고통의 숲이 바로 성공을 만들고, 미래를 여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2011년 신묘년이 밝았다. 우리 전기인 모두,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KEA